

| 제 3 부 |

교사를 위하여

제 8 장 학습을 촉진하는 인간관계

제 9 장 촉진자가 되는 길

제 10 장 자유를 신장하는 방법

제 11 장 교육의 정치

제 12 장 인간중심 교실에도 규율이 있는가?

제 13 장 교육에서 인간중심적 쟁점에 대한 학술연구







제 8 장

학습을 촉진하는 인간관계

이 장은 학습의 과정과 그 과정을 촉진하는 태도와 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열정적이고 사적인 글이다. 이 글은 여러 군데서 다른 형태로 여러 번 제시된 바 있는데 처음은 하버드대학에서였다(pp. 1~18).¹ 그러나 이 책에 실기 위하여 그 글을 개정하였다. 이 글에서 나는 '교육'이라고 일컫는 과정에 관한 나의 깊은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분을 언짢게 하는 말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교수(教授)란 내가 보기에 상당히 과장된 기능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서, 나는 즉시 사전을 찾아 내가 한 말이 진실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교수는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비록 남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교수란 '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은 학생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책이나 프로그램학습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의 회의가 제기된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교수는 ‘보여 주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저 수동적으로 안내받고 지시받으며, 구경만 해 왔다. 따라서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진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교수란 내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활동이며, 교육현장에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활동이다.

그러나 나의 태도는 이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서 교수에 대해 나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모든 잘못된 의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수에 중점을 두자마자 무엇을 가르칠까, 우리의 우월한 입장에서 볼 때 남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대사회에서 어른들은 미래에 대하여 현명하고, 젊은이들은 어리석다는 가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진실로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알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생긴다. 교육과정은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은 가르친 것은 학습되고, 제시된 것은 그대로 동화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토록 극명하게 거짓된 가정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 가정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할 필요조차 없다. 단지 몇 명의 학생들과 대화만 해 봐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내가 교수에 대하여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물어본다. 나는 오래전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경험을 즉시 떠올려 본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2만 년 이상 살아온 한 부족이 있는데, 그들은 현대인이라면 며칠밖에 살 수 없는, 황폐한 환경에서 생존해 왔다. 그 원주민의 생존 비밀은 교수였다. 원주민은 젊은이들에게 물을 찾는 법, 사냥감을 찾는 법, 캥거루를 잡는 법, 길 없는 사막에서 길을 찾는 법과 같은 여러 가지 지식을 전수해 왔다. 그와 같은 지식은 젊은이들에게 행동방식으로 전수되며, 어떤 혁신도 경계한다. 비교적 변하지 않는 거친 환경 속에서 원주민에게 생존하는 방법을 제공했던 것은 분명히 가르침이었다.

이제 나는 나를 흥분시켰던 의문의 핵심에 좀 더 접근했다. 교수와 지식의 전수는 변화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교수가 오랫동안 비판받지 않았던 이유이다. 그러나 현대인에 관한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현대인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물리학이 20년 후에는 진부한 것이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심리학이 20년 후면 분명히 시대에 뒤진 것이 될 것이다. 소위 ‘역사적 사실’이라 부르는 것도 시대의 분위기

와 문화의 경향에 크게 좌우된다. 화학, 생물학, 유전학, 사회학 등이 변화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정설은 학생들이 그 지식을 이용할 때가 되면 거의 모두를 수정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생존하려면 변화와 학습을 촉진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할, 전적으로 새로운 교육환경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교육받은 사람은 배우는 법을 학습한 사람이고, 적응하고 변화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며, 변하지 않은 지식은 없고,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만이 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고정된 지식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의 신뢰, 즉 변화라는 개념이 현대사회의 교육목적으로서 의미가 있는 유일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지고 하나의 행동,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게 되는데, 그것은 학습의 촉진(facilitation of learning)으로서 진실로 나를 흥분시킨다. 내가 한 집단을 — 여기서 한 집단이란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 — 학습공동체로 바꾸어 놓았을 때 체험하는 그 감동은 거의 믿기가 어려운 정도이다. 호기심을 발동하게 하는 일, 탐구 욕구를 해방시키는 일, 모든 것을 질문하고 탐색해 보도록 개방하는 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천과정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이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집단 속에서 그 체험을 항상 할 수는 없다. 부분적으로 혹은 대체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집단경험이 된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진정한 학생, 참된 학습자, 창조적인 과학자와 학자 그리고 실천가들이 배출되고, 현재 알고 있는 것과 미래의 유동적이고 변천하는 문제와 사실들 사이에서 섬세하지만 늘 유동적인 균형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탄생한다.

여기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칠 수 있는 목표가 하나 있다. 나는 학습의 촉진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고, 그것은 학습자를 양육하는 방법이며, 변화는 과정 속에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학습의 촉진이야말로 오늘날 인류를 둘러싼 가장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실험적인, 변천하는 과정상의 해답을 제시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로운 교육목적의 성취할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경우엔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참된 희망을 주지 못하는 도깨비불은 아닌가? 나의 대답은 자주적이고, 의미 있고, 경험적이며, 깊이 있는 학습을 조장하는 조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조건들은 교육방법에서 하나의 혁명을 의미하는데, 혁명은 용기 없는 자들에게는 해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

들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을 자주 볼 수는 없다. 제6장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혁명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 증거를 몇 가지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하는데, 학습촉진은 교사의 교수기술이나 그 분야의 학문적 소양, 교육과정계획, 시청각자료, 프로그램학습, 강의 혹은 많은 책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비록 그런 것들이 중요한 자료로서 한두 번 이용될 수는 있어도 학습을 촉진하는 조건은 되지 못한다. 의미 있는 학습의 촉진은 촉진자와 학습자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어떤 태도적 자질에 달려 있다.

그와 같은 발견은 심리치료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결과가 교실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다. 심리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긴밀한 인간관계는 이런 자질을 가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끝없는 상호작용 속에서도 그런 특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학습을 촉진하는 특성

학습을 촉진시키는 태도와 특성은 어떤 것들인가? 교육현장의 실례를 인용하여 이 같은 자질들을 간략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학습촉진자의 진실성

아마도 이들 기본적인 태도 중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진실성 또는 진솔성이다. 촉진자가 진실한 인간일 때,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가면이나 가식 없이 학습자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은 촉진자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고, 그 느낌대로 살며, 그 느낌대로 존재하며, 필요하면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촉진자가 학습자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촉진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자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교사는 열정적일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다정다감할 수도 있다. 교사는 이와 같은 느낌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학생들에게 속일 필요가 없다. 교사는 학

생의 작품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수하거나 열등한 것에 상관없이 그것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 교사는 단지 그 작품에 대한 느낌과 자기 마음속의 느낌을 표현할 뿐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과정의 얼굴 없는 화신(化身)도 아니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무미건조한 통로도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학생들에게 존재한다.


심리치료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된 이와 같은 태도적 자질은 학생들에게 단지 교사의 역할을 보여 주는 대부분의 교사들의 성향과는 분명히 대조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의식적으로 교사라고 하는 가면과 역할을 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온종일 이것을 하고 있다. 저녁에 학교를 떠날 때만 그 가면을 벗어 버리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실비아 애쉬튼워너(Sylvia Ashton-Warner)의 예를 들어 보자. 그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담당했는데, 그 아동들은 저항적이며 학습속도가 늦은 부진아들이었다. 그들의 독해어휘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비아 교사는 각 아동들이 어떤 어휘든 그들이 원하는 단어를 요청하면 카드에 그것을 써서 그 아동에게 주었다. 입맞추기(kiss), 귀신(ghost), 폭탄(bomb), 호랑이(tiger), 싸움(fight), 사랑(love), 아빠(daddy)와 같은 어휘들이 그 예가 된다. 곧 아동들은 문장을 만들었고, 그 문장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는 혼날 거야.” “고양이는 놀랐다.” 이와 같이 자주적으로 학습한 것을 아동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것은 실비아의 교수방법이 아니라 그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는 자기의 독자를 대할 때나 아동들을 대할 때나 똑같이 열정적인 진실의 소유자였다. 한 편집자가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물었는데... 이 주제에 관한 한 나 자신 속에, 혹은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지만 엄연한 사실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다만 창조적인 교수라는 문제에 뜨거운 열정이 있을 뿐이고, 그 뜨거운 사실이 책과 나를 불사를 뿐이다”(p. 26).²

여기에는 목석같은 거짓된 모습이 없다. 감정이 있고 확신에 찬 생기발랄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를 학습의 촉진자가 되게 한 요소 중의 하나는 그의 진실성이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는 어떤 정교한 교육적 공식에는 맞지 않는다. 학생들은 진실로 개방적으로 존재하는 사람과 접촉함으로써 성장하는데, 그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그는 바바라 실(Barbara Shiel)인데, 6학년생들의 학습을 촉진시켰던 흥미 있는 일들이 앞에서 예시되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많은 책임을 수반한 자유를 주었는데, 나는 그 학생들의 반응 가운데 몇 가지를 뒤에 소개하려 한다. 여

기 그가 학생들과 상호작용한 실례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분노의 감정도 나누었음을 보여 준다. 그는 그림 그릴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학생들은 그것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교실은 혼돈의 상징처럼 어지러웠다. 여기에 그의 감정과 그가 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나는 더럽고 어지러운 데서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나 이외에는 아무도 지지분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어느 날 어린이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성격상 깨끗하고 정돈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지지분하면 짜증이 난다. 너희는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청소를 하겠다는 지원자가 있었다… 나는 똑같은 어린이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청소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기를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말았다.³

이 같은 예가 내가 앞에서 말한 문구에 어떤 생생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촉진자는 이렇게 “느낌대로 살 수 있고, 느낌 그 자체가 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느낌을 적절히 표현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우리 대부분이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부정적인 감정의 한 실례를 보여 주었다. 그 실례에서 설 교사는 지지분한 것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드러내야 하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 경험으로도 그와 같은 일이 항상 일어난다. 그 어린이들은 교사의 감정을 수용하고 존경하고 있다. 그들은 교사의 감정을 고려하고, 내가 보기에 아무도 제시할 수 없는 산뜻한 해결책을 고안해 내고 있다. 설 교사는 “나는 내가 분노할 때 불안했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현명하게 대답한다. “마침내 나는 어린이들도 나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등한시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나 역시 한계가 있으니까.”³

긍정적인 감정도 진실하게 표현하면 똑같이 효과적인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반응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학급에서의 선생님의 유머감각은 우리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기계적인

교사의 이미지가 아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다른 학생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 선생님은 한 인간으로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은 걸어다니는 교과서가 아닌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수업의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 교실에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동반자’로서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아주 잘 헤아려 알고 민감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저 수업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한 체험이었습니다.⁴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단번에 성취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학습의 촉진자, 즉 혁명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존중, 수용, 신뢰

학습을 성공적으로 촉진시키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태도가 있다. 나는 이 태도적 자질을 관찰하고, 경험해 왔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용어로 설명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것을 나는 학습자에 대한 존중, 즉 학습자의 느낌, 학습자의 의견, 학습자의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학습자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비소유적 사랑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별개의 인간으로, 존재가치가 있는 개인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기본 신뢰이다. 우리가 그것을 인간에 대한 존중, 수용, 신뢰라고 부르든 혹은 다른 말로 부르든 간에, 그것은 관찰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태도적 자질을 갖

추고 있는 촉진자는 학생들의 성취감은 물론 새로운 문제에 접근할 때 학생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망설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 교사는 학생들이 주요한 학습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은 물론 학생들의 무관심과, 학습목표를 벗어난 학생들의 별난 욕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와 같은 교사는 학습을 방해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사적인 느낌, 즉 경쟁심, 권위에 대한 증오, 적절성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등도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서 묘사하는 것은 많은 느낌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존재로서 학습자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에 대한 촉진자의 존중이나 신뢰는 인간유기체의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과 신뢰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이와 같은 태도의 몇 가지 실례를 나는 교실상황에서 제시해 주고 싶다.

그러나 교사의 진술은 어떤 것이든 의심받을 수 있다. 그 까닭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이런 태도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쉽고, 또 우리의 자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 좋게 경험해 본 학생들에게 존중, 수용, 신뢰의 태도가 어떻게 지각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여기 모리 아펠(Morey Appell) 박사의 수업에서 경험한 대학생의 진술을 소개한다.

🦋 선생님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는 저에게 계시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 저는 중요하고 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고, 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생각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는데 그것은 교과서와 강의만으로는 얻을 수 없고 삶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참된 느낌과 욕구를 가진 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행한 것은 저에게서 나온 의미 있는 표현이고,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⁵

패트리샤 불(Patricia Bull) 박사와 더불어 수업을 한 대학생들은 이 같은 존중과 신뢰의 태도뿐만 아니라 이 태도들이 다른 상호작용에 끼친 효과까지도 기술하고 있다.

🦋 우리들 사이에 무언중에 약속이나 한듯한 상호이해가 있어서 저는 선생님께 친근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지 몰라서 자신이 없을 때라도 적어도 한 사람, 선생님만은 반응해 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느낍니다.

🦋 저는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표명한 관심과 존중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업에서의 경험과 독서의 결과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방법이 이상적인 학습구조를 제시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의 축적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자신에 관한 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9월 학기 초의 얇은 인식과 지금의 깊은 통찰을 비교해 볼 때, 저는 이 과정이 다른 학습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커다란 가치를 지닌 학습경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존경을 잃게 될까 봐 이 방법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대신에 우리들과 같은 수준에서 말씀하십시오. 오히려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화가 부족했던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경청하고, 지적인 어른 수준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수업이 우리들에게 이런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⁴

이와 같은 예들은 학습자에게 관심을 가져 주고, 학습자를 존중하며 신뢰하는 촉진자는 일반교실과 아주 관이한 학습풍토를 조성하기 때문에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공감적 이해

자주적인 경험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공감적인 이해이다. 교사가 학생 반응의 동기를 이해할 능력이 있고, 교육과 학습과정에 대해 학생들이 지각하는 방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면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은 증대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이해는 “나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식의 평가적 이해와는 다르다. 공감적 이해가 있을 때 학습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나를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 이제 나는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태도, 학생의 눈으로 그린 세계를 보는 태도는 보통교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수천 번의 보통교실의 상호작용을 떠올릴 수 있지만

명료하고 정확한 공감적 이해는 단 한 번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나 공감적인 이해는 그것이 실현될 때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다루는 버지니아 액슬린(Virginia Axline)의 예를 들어 보자. 제이는 7세이고 공격적이었으며, 문제아였고 언어발달이 느린 학습 부진아였다. 그가 욕을 했기 때문에 교장실에 끌려갔고, 교장선생님은 그를 때려 주셨는데, 액슬린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자유시간에 제이는 점토로 된 인형을, 모자와 주머니 속의 손수건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액슬린이 “그 인형이 누구냐?”고 물었다. 제이는 “몰라요.”라고 응답했다.

“그 인형, 교장선생님 아니야? 교장선생님도 그 인형처럼 주머니에 손수건을 넣어 다니시잖아.” 제이는 점토로 된 인형을 노려보면서 “맞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인형의 머리를 뜯어 버리더니 쳐다보며 웃었다. 액슬린은 “너는 때때로 그의 머리를 비틀고 싶지? 교장선생님이 밉지?”라고 말했다. 제이는 한쪽 팔을 뜯어내고, 또 다른 쪽을 비틀더니 주먹으로 인형을 쳐서 망가뜨렸다. 제이의 마음을 아는 다른 소년이 “제이는 오늘 점심때 교장선생님한테 몹시 혼났기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기분이 후련해졌겠다.”라고 액슬린이 말했다. 제이는 씩 웃으며 교장선생님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였다(pp. 521~33).⁶

내가 인용한 예는 학생들이 교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관점에서 평가받거나 판단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받을 때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가를 보여 준다. 만약에 어떤 교사가 학생들의 감정표현에 대하여 하루에 한 번씩 무비판적, 수용적, 공감적 이해를 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현재는 거의 전무한 이런 이해의 위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촉진적 태도의 바탕은 무엇인가?

하나의 '수수께끼'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태도를 항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 교사들은 “내가 지금 나의 학생들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존중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제까지 언급